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 후식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만인의 땅'이 있다. 크기도 엄청나다. 한반도의 60배가 넘고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과 같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 살 수는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높으며, 건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발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땅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육지의 98%가 2~4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 백색의 제7 대륙, 남극이다. '2008 남극대륙 빙순 매시프 원정대' 대원으로서 그곳에 발을 디딘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시한폭탄' 남극조약

남극대륙에 머문 기간은 2주일, 예상대로 자연환경은 혹독했다. 여름인데도 수온주는 영하 20도 이하로 곤두박질치곤 했다. 블리자드가 끊임없이 몰아쳐 피부에 와닿는 추위는 훨씬 매서웠다. 폭풍설은 한 번 시작되면 2~3일은 계속됐다.

남극조약 50년 '총성 없는 전쟁'

남극 대륙은 남빙양과 더불어 기상학 및 빙하학, 지구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은 물론 금속, 건설, 토목 등 각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금, 은 등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장돼 있고, 크릴 등 다양한 생물자원도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남극의 경제·학문·군사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땅싸움이 시작됐다. 영국이 1908년 처음 영유권을 주장한 이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지역적 인접성과 탐험의

역사를 내세워 각축을 벌였다. 처음부터 인류 공동의 자산은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과 옛 소련을 포함한 12개 국은 1959년 12월 대륙의 평화적 이용과 영유권 동결, 과학적 탐사의 자유 등을 약속한 '남극조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이 조약과 이후 2048년까지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한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분쟁을 억누르고 있지만 한시적 협력뿐이어서 '시한폭탄'이나 진배없다.

우리나라의 남극진출은 과학자들과 산업인들이 주도했다. 1985년 한국해양소년

성의 비밀을 풀어줄 운석들을 찾아냈다. 인간의 혈액을 안전하게 냉동보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위상을 한껏 높였다.

열악한 연구 인프라

하지만 극지 연구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하기 짙어졌다. 외곽 섬에 위치한 세종기지는 남극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극지 연구와 대체 내부 탐사가 힘들다. 필수 장비인 쇄빙선이나 수송기도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 임차해야 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은 기지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원 등 이권을 선점하고 과학기지를 내세워 언제 재연될지 모를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얀 사막에서 펼쳐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다행히 정부는 제2의 남극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도 물을 진수될 예정이다.

'미래의 보물창고'인 남극은 자원 빙국인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로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남극에 대한 투자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박 행순



지난 2006년 4월, 본란에 필자가 기고한 '여성과학기술인센터 광주·전남 유지해야'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그 바탕이 실현되어 두 달 뒤 전남대학교가 최초의 지역센터로 선정되었다.

원래 정부는 5년 동안에 전국에 9개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아마도 현재의 5개(이화여대, 전남대, 동서대, 충남대, 경북대)로 끝날 전망이다. 그리하여 서울센터가 경기와 제주도를, 우리가 전북을, 그리고 대전·충남센터가 충북을 포함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상(像)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차갑고 냉철한 두뇌,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하는 곳으로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점포할 수 있도록 도움닫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호주의 랩매니저에게 정규직이냐고 물었더니 모두 3~5년의 계약직이라고 대답했다. 계약이 끝나면 자유롭게 경력과 능력에 따라 이동한다고 했다. 이러한 고용형태를 준정규직이라고 보면 지원센터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바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상(像)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차갑고 냉철한 두뇌,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하는 곳으로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점포할 수 있도록 도움닫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아시아 여성과학기술인들 메카로

우리는 그간 이곳에 출신 청년구직자와 경력중단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랩매니저라는 신직업을 확장하였으며 매년 30~40명을 취업 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A)평가를 받았고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주기 배정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이 존재하고, 과학기술계 비정규직에 대한 획기적 대안이 없는 한, 우리의 성과를 마음 놓고 자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부에서는 지원센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한다. 취업성과가 좋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미취업자, 경력 단절자를 단기교육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생각에 허탈하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중간역할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감사하는 마음, 기회를 활용하는 부지런한 손발이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며, 아시아 국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교육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국내에서는 방과후 과학강사로 활동하고, 상해, 연변, 몽골의 몰디바리트에서는 과학축제를 진행한다. 우리는 수년째 한·중 학술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조선족여성과학기술인센터 건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왔고, 몽골에서는 청소년 과학관을 만들고 찾아온다.

우리는 호남지역에만 안주하고 싶지 않다. 3년 전 센터개소식 때 외쳤던 '광주·전남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세계를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오늘 우리 모두의 구호로 삼아 시대를 앞서가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모델이 되고 싶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전남대 약대 교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상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지적장애인 정책적 지원... 사회진출 도와야

기 고

최홍규



지난해부터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하다. 우리 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소방차나 급수선에 의한 운반급수 대상 지역이 5개 시·군 23개 마을 768세대에 달한다. 시간제 및 격일제로 재한적인 금수를 받고 있는 지역도 자그마치 16개 시·군 165개 마을 1만456세대에 이르고 있다.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겨울 가뭄으로 이어진 데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강수량은 목포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극한 가뭄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가뭄극복비상대책본부를 전사적으로 발동하고 대책마련을 세웠다. 주요 내용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템간 연계 운영을 실시한다. 물이 부족한 템은 물이 충분한 다른 템과 연결하여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가뭄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단계별로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며, 가뭄피해지역에는 비상급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만반의 준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하여

기준 960.5mm로 전년도인 2007년 강수량 1천350.5mm의 71%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임자도 일부 마을의 경우 4

일제 급수를 받고 있으며 급수 시간마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받고 있다.

특히 우리 공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신안군, 순천시 등 7개 시·군 주민 1만4천290명에게 250t의 급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군서면과 영암읍의 가뭄 극복을 위하여 광역상수도를 6개월 앞당겨 조기에 개통시키는 등 약 1만여명 주민의 물부족 해결 및 가뭄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가뭄은 우리에게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현재의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수세식변기에 물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병이나 벽돌을 넣어 두기, 첫솔질이나 면도 때 물을 받아서 쓰기,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기, 기름 묻은 그릇은 화장실로 던는 뒤 설거지하기, 빨랫감을 모아서 세탁기를 돌리며, 세제는 가급적 적게 사용하기, 육조 목욕보다 샤워기 이용하기,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절수기를 부착하는 노력 등 작은 것에서부터 물 절약 실천이 절실히 한다.

현제 전국의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이 40%인 반면 우리 지역의 경우, 광주, 화순, 나주, 순천, 여수, 광양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이 28%, 목포, 무안, 장흥, 신안, 완도 등에 물을 공급하는 장흥댐이 34%의 저수율로서 전국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물 상반기까지는 물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나 이후 여름에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도 심각한 용수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어린이 수면부족, 건강·학습 뒤에 부정적

얼마전 보도를 들으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한다.

한국 아이들은 스웨스-이스라엘·홍콩·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아이들에 비해 평균 0.5~1.5시간 정도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각종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집에서도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면 다 아는 일이지만 어린이들이 성장기에는 수면시간이 밤 10시께 키가 많아 자란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수면시간이 늦을 경우 성장을 아

주나쁜 결과를 갖어오는 것이다.

어린이의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 학생 중 26% 정도가 불안증과 우울증, 강박증 같은 정서문제를 앓고 있고 거기다가 반항적이거나 난폭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조화로운 심신건강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정과 학교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진혁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시 설

기준도, 원칙도 없는 구조조정 납득 안 된다

20일 발표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평가는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도, 명확한 원칙도 없는 문제점부수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그에 대해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 퇴출 대상인 대주건설과 C&G중공업은 모두 지역 중견기업이다. 워크아웃 대상인 대한조선과 삼성건설 역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향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주건설과 대한조선만 하더라도 1천5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출도산과 8만여명의 종업원들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아예 결단을 내고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야기될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신용위험평가 기준 시점부터가 엉터리다. 22개 평가항목의 기본인 재무자료가 2008년 말이 아닌 2007년 말이 기준이다. 최근 기업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1년 전의 자료를 기초로 신용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자료인 향후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 계획은 아예 빠져 있다. 현재는 무시한 채 과거만 기준으로 기업 미래를 판단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위다.

평가 점수에서 비 재무항목의 비중이 60~70%에 이른 것도 문제다. 은행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기업 수가 수시로 변하는 등 오락가락한 채권단의 태도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을 아예 봄еш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와 채권단은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야기될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철거민 진압에 별도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인명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점거장소에 인화물질을 가득 쌓아놓은 만큼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철거한 진압작전을 세웠어야 했다. 동시에 보상을 담당하는 은행구청 관계자들은 앞세워 세입자들과 대화를 시도해 마지막까지 설득해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생략한 채 경찰특공대를 앞세워 무리한 작전을 벌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용산참사는 철거한 진상조사와 함께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재개발 행정의 문제점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철거민들을 막론으로 몰아붙인건 아닌지 말이다.

無等鼓

2050년 8월, 전남 서남해안 일부가 영화 '워터월드'처럼 바닷물에 잠긴다.

주산지 개발은 이미 엉망이 된 상태다.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생산되고 있는가 하면 제주감귤은 남해안까지 밟고 올라왔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망고나 파파야·아보카도 등 아열대 과일도 지난해 곡성군 등을 비롯해 호·영남지역에서 무려 69㏊가 생산되

기도 했다. 남부지역은 벼농사를 1년에 두 번 째를 수 있는 이기 작도 가능해지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작업을 서둘어야 한다. 주산지 재편에 따른 농산물 유통을 점검하고, 해충 및 국지성 호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작목이나 영농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작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50여년 만에 지속한 가뭄이 예상된다. 이를 예보다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전남농정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지, /이종태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광주 일보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禕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